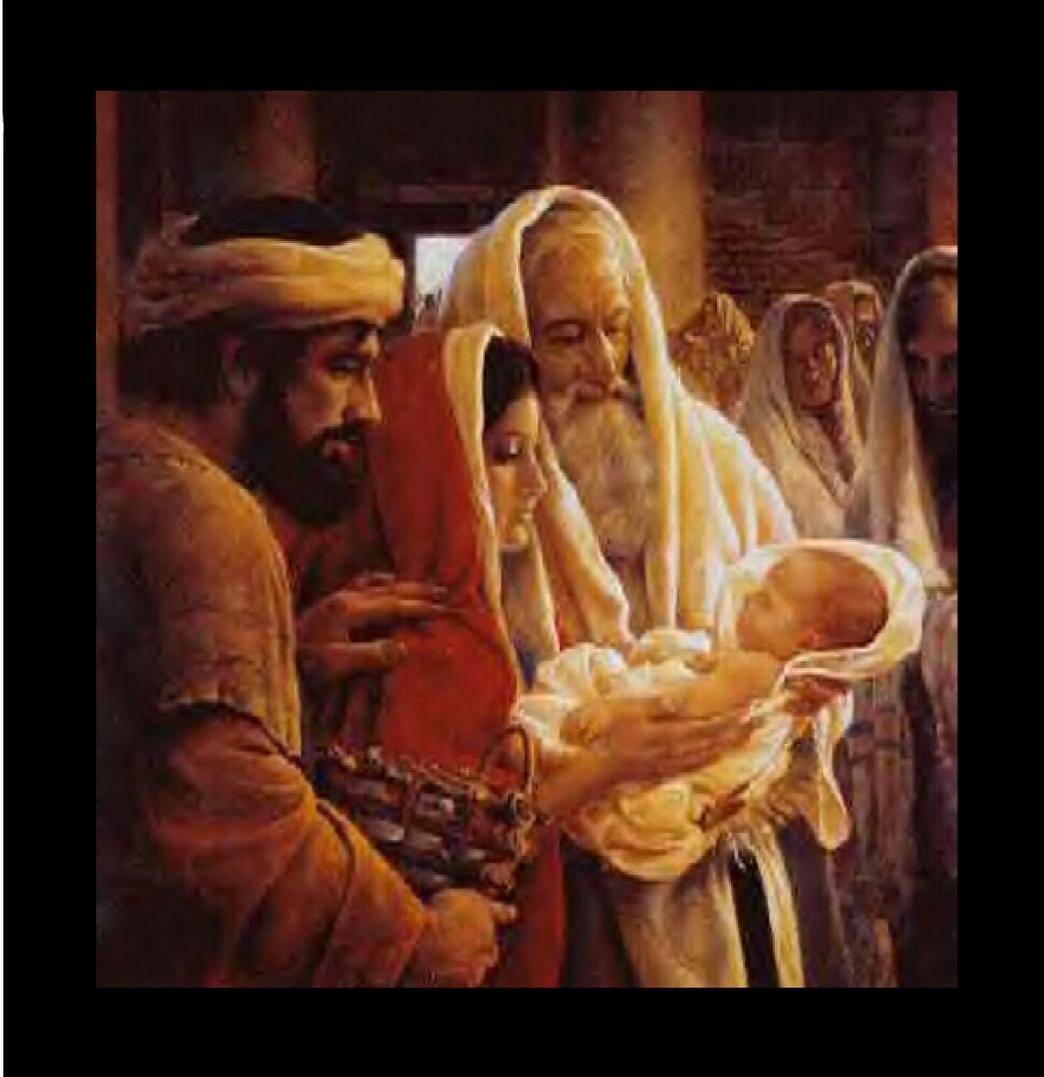


2014 2.02 주님 봉헌 축일 (봉헌 생활의 날)

제 1 독서 : 말라키 3,1-4 <너희가 찾던 주님, 그가 자기 성전으로 오리라.>

제 2 독서 : 히브리서 2,14-18 <예수님께서서는 모든 점에서 형제들과 같아지셔야 했습니다.>

복 음 : 루카 2,22-40 <제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베이커스필드 성클레멘테성당 : 본당 주임신부 전흥식 요아킴

부자가 되면 행복할까요?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면 행복은 저절로 따라 온다는 **확신** 아닌 확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전에도 몇번 말씀을 드렸지만 마르린 몬로, 마이클 잭슨, 엘비스 프레슬리 또 최근의 자스틴 비버 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만약

행복하였다면 그런 삶을 살았거나 또 지금 그렇게 살고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그 사람들이 힘들어 하는 것은 그들에게 **정신세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신세계가 없기때문에 물질적으로 풍부하게, 예를 들어 개인비행기를 비롯하여 우리가 부러워 할 모든 것을 가졌음에도 항상 부족 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부자 중에서도 마음과 정신세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가난하다고 하여 모두가 정신세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행복한 삶이란 나를 주님께 봉헌하는 삶입니다. 나의 모든것을 주님께 맡기고, 그 분께서 주신 모든 것에 대하여 매 순간 순간을 감사하며 사는 삶이 바로 행복한 삶인 것입니다.** 초가 빛을 발하는 이유는 자기자신을 태우기 때문입니다. 자기자신을 태운다는 것은 그만큼 고통과 아픔이 수반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 자신을 태울 때에 빛을 발 하듯이, 내 자신을 하느님 앞에 희생 할 때에 바로 그분의 사랑이 그만큼 빛으로 발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제 2 독서의 말씀을 보십시오. **“ 자녀들이 피와 살을 나누었듯이, 예수님께서도 그들과 함께 피와 살을 나누어 가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모든 점에서 형제들과 같아지셔야 했습니다. 그 분께서는 고난을 겪으시면서 유혹을 받으셨기 때문에, 유혹을 받는 이들을 도와 주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는 것은, 즉 사는 것이 힘들고, 사기를 당하기도하고 또는 억울하게 고소 당하기도 하는 모든 것들은 하느님께서 우리를 더 크게 쓰시고자 시련을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주님께서 더 크게 쓰시고자 나에게 이 고통의 선물을 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 하십시오.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한 역대 교황님들 요한 바오로 2 세, 베네딕토 16 세, 프란치스코 교황님들도 다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입니다. 요한 바오로 2 세는 사제가 되기전에 탄광에서 일 하신 적이 있으며, 프란치스코 교황 역시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셨고 한 때는 술집문지기 역할을 하신적도 있다고 합니다. 베네딕토 16 세께서는 교황님이되시기 전에도 신앙교리성 장관으로 계시면서 교회의 신학을 정립하신 분입니다. 또한 21 세기 최고의 신학자로서 유럽의 최고의 지성이라 일컬어지시는 분입니다. 이런분이 아무 후회없이 교황직을 사임하신 것입니다. 교황직이 어떤 자리 입니까? 세상의 어떤 권력도 어떤 권한도 교황직에 버금 갈수는 없을 것입니다. 제 2 차세계대전이 한창 일 때 히틀러도 교황님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한 교황의 자리를 어떤 누구의 강요도 없이 스스로 내어 놓으신 것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주위에서 사람들이 걱정할 정도로 목숨을 내어놓고 사시는 분 이십니다. 교황님을 알현하기 위하여 수 십만명이 방문을 하지만 교황님은 자신의 안전에는 거의 신경을 쓰시지 않습니다. 광장에 들어가기 위하여는 물론 검색대를 통과 하여야 하지만 옆으로 얼마든지 드나들 수가 있습니다. 또한 교황님은 혼자서 밤에 슬쩍 나가셔서 노숙자를 만나기도 하십니다. 이제 다시 오늘 강론의 원점으로 돌아가서 말씀 드립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속에서 당하게되는 고통들은 우리에게 힘든 것이지만, 그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도 하느님께 감사 드려야 합니다. **‘나를 지금보다 더 좋게 하여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이 고통을 주셨구나!’** 하면서 그 고통을 받아들이십시오. 저도 이제 수도생활 11 년, 그리고 사제생활을 13 년을 보냈습

니다. 그동안 어려운 상황들을 수십번, 수백번, 수천번을 겪었습니다. 어떤때는 분통을 터트려보고 울분을 토로해 보았자 저만 손해 라는 것을 느끼곤 하였습니다. 문제가 해결되기는 커녕 오히려 위장에서 피가 나고, 그렇게 저의 건강만 해칠 뿐이라는 것을 이제서야 조금씩 느끼며, **하느님께서 무슨 뜻이 있으셔서 이러한 어려움을 주시는 것이겠지 하면서 받아들일 때에 신기하게도 마음의 평화가 찾아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늘 주님 봉헌 축일을 맞아 이 미사중에 우리도 힘이 들더라도 우리자신을 희생하며, 주님의 사랑을 우리 이웃들에게 밝힐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할수 있도록 기도 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너희가 찾던 주님, 그가 자기 성전으로 오리라.>

말라키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3,1-4

주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 “보라, 내가 나의 사자를 보내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닦으리라. 너희가 찾던 주님, 그가 출연히 자기 성전으로 오리라. 너희가 좋아하는 계약의 사자, 보라, 그가 온다.

—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 2 그가 오는 날을 누가 견디어 내며, 그가 나타날 때에 누가 버티고 서 있을 수 있겠느냐?

그는 제련사의 불 같고, 염색공의 잿물 같으리라. 3 그는 은 제련사와 정련사처럼 앉아, 레위의 자손들을 깨끗하게 하고, 그들을 금과 은처럼 정련하여, 주님에게 의로운 제물을 바치게 하리라.

4 그러면 유다와 예루살렘의 제물이 옛날처럼, 지난날처럼 주님 마음에 들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모든 점에서 형제들과 같아지셔야 했습니다.>

▣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2,14-18

14 자녀들이 피와 살을 나누었듯이, 예수님께서서도 그들과 함께 피와 살을 나누어 가지셨습니다. 그것은 죽음의 권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당신의 죽음으로 파멸시키시고, 15 죽음의 공포 때문에 한평생 종살이에 얽매어 있는 이들을 풀어 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16 그분께서는 분명 천사들을 보살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보살펴 주십니다.

17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모든 점에서 형제들과 같아지셔야 했습니다. 자비로울 뿐만 아니라 하느님을 섬기는 일에 충실한 대사제가 되시어, 백성의 죄를 속죄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18 그분께서는 고난을 겪으시면서 유혹을 받으셨기 때문에, 유혹을 받는 이들을 도와주실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제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2,22-40<또는 2,22-32>

22 모세의 율법에 따라 정결례를 거행할 날이 되자, 예수님의 부모는 아기를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라가 주님께 바쳤다. 23 주님의 율법에 “태를 열고 나온 사내아이는 모두 주님께 봉헌해야 한다.”고 기록된 대로 한 것이다. 24 그들은 또한 주님의 율법에서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비둘기 두 마리를” 바치라고 명령한 대로 제물을 바쳤다.

25 그런데 예루살렘에 시메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 사람은 의롭고 독실하며 이스라엘이 위로받을 때를 기다리는 이였는데, 성령께서 그 위에 머물러 계셨다. 26 성령께서는 그에게 주님의 그리스도를 뵈기 전에는 죽지 않으리라고 알려 주셨다. 27 그가 성령에 이끌려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아기에 관한 율법의 관례를 준수하려고 부모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들어오자, 28 그는 아기를 두 팔에 받아 안고 이렇게 하느님을 찬미하였다.

29 “주님, 이제야 말씀하신 대로 당신 종을 평화로이 떠나게 해 주셨습니다. 30 제 눈이 당신의 구원을 본 것입니다. 31 이는 당신께서 모든 민족들 앞에서 마련하신 것으로, 32 다른 민족들에게는 계시의 빛이며, 당신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33 아기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기를 두고 하는 이 말에 놀라워하였다. 34 시메온은 그들을 축복하고 나서 아기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을 쓰러지게도 하고 일어나게도 하며, 또 반대를 받는 표징이 되도록 정해졌습니다. 35 그리하여 당신의 영혼이 칼에 꿰뚫리는 가운데,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이 드러날 것입니다.”

36 한나라는 예언자도 있었는데, 프누엘의 딸로서 아세르 지파 출신이었다. 나이가 매우 많은 이 여자는 혼인하여 남편과 일곱 해를 살고서는, 37 여든네 살이 되도록 과부로 지냈다. 그리고 성전을 떠나는 일 없이 단식하고 기도하며 밤낮으로 하느님을 섬겼다. 38 그런데 이 한나도 같은 때에 나아와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예루살렘의 속량을 기다리는 모든 이에게 그 아기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39 주님의 법에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나서, 그들은 갈릴래아에 있는 고향 나자렛으로 돌아갔다.

40 아기는 자라면서 튼튼해지고 지혜가 충만해졌으며,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